

나주 혁신도시 불량 수도물 5000명 피해

지난달 26일부터 LH아파트 4개 단지서 흉탕물 나와

주민 “수자원공사 배수지 연결공사 후 더러운 물” 지적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내 5000여 주민들이 불량 수도물 공급으로 이틀째 불편을 겪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혁신도시내 LH 아파트 1~4단지에서 탁한 수도물이 나오자 지난 2일 오후부터 수도물 음용을 중단시켰다.

LH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수도꼭지에서 처음으로 흉탕물이 나온 때는 지난 26일. 주민들이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하자 급히 아파트에 물탱크를 청소하고 다시 수도물 공급을 시작했지만 탁도는 호전되지

않았다. 급기야 나주 수자원관리소와 시행사 등 관계자들이 수질검사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0.5NTU이하)의 4배를 초과하는 2.7NTU로 나타났다. 혁신사업단 역시 긴급히 생수를 공급하고 LH 아파트만의 문제인지, 혁신도시 전체 수도물의 문제인지 파악에 나섰다.

아파트 입주인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2일 오후 ‘수도물 음용을 중단해 달라’는 방송을 했다”며 “수도물 부적합 경보가 내려지면서 가구당 지급되는 생수가 마실 물을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량 수도물 공급원인을 두고 시행사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나주시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나주시는 시행사가 송수관 관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흉탕물이 들어 고여 있다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구역별로 택지개발에 참여한 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에 관로 청소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혁신도시내 수도물 공급은 본래 주암댐에서 화산 정수장으로 보내 음용에 적합하도록 정수한 후 다도배수지에서 받아 공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다도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화산 정수장에서 곧바로 혁신도시에 물공급을 해오다 최근 다도배수지의 물탱크와 연결된 관

로 보수작업을 마친 후 지난 26일부터 혁신도시로 첫 수도물 공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들은 “흉탕물이 나온 시점이 다도 배수지를 통해서 물 공급을 시작한 날과 맞아 떨어진다”며 수자원공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시행사로부터 혁신도시 시설물을 인수하고 있는 나주시와 수도물 공급을 위탁받은 나주 수도관리사업소는 그동안 다도 배수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 시설물 인수절차를 진행해 인수 매뉴얼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나주 빗가람동 인구는 지난 25일 기준 2077세대 5031명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내 상수도관(규기 50~250mm) 전체 길이는 53.2km에 달한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여수상의 회장에 박용하 전 회장

“지역경제 위기 해소 총력”

여수상의 회장과 대한상의 부회장을 지낸 박용하(사진) (주)와이엔텍 대표가 22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신입 박회장은 3일 여수상의 대회의실에서 의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30표를 얻어 9표에 그친 안종식 유진기 업 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에 김철희 (주)대신기공 대표이사, 감사에 유재준 (주)LG화학 공장장, 이윤규 퍼시픽기계기술(주)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박용하 신임 회장은 “중국발(發) 수요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 등 석유화학 경기 침체로 여수산단 기업들과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막



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지역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와 여수산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소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1000만 관광객도시로 발돋움한 여수가 노사화합과 상생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여수 출신인 박 신임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15~18대(1994~2006년) 여수상의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함평 ‘노인 주간보호센터’ 내달 본격 운영

함평성심병원 3층에 개설

치매와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자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낮시간대에 돌봐주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가 함평에 개설된다.

함평 성심병원(원장 정대호)은 병원 건물 3층을 리모델링해 15명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해 4월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노인 주간 보호센터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있는 가정의 가족들이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부양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다.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 가족들

이 직장 등에 출근해 낮시간대에 혼자 생활해야 하는 노인들을 간병과 함께 재활치료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간호 서비스 등의 의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설이용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아침에 요양원 차량으로 직접 노인을 모시고 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뒤 오후에 집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함평 성심병원 관계자는 “가족들이 직장 등에 출근하는 시간대에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봐주기 위해 이 센터를 개설키로 했다”며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로 가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무안 승달 국악대제전’ 대상 대통령상으로 승격

‘무안 전국 승달 국악대제전’의 종합대상이 5년만에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3일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사무실에 따르면 최근 ‘무안 전국 승달 국악대제전’의 대통령상 상훈 승격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대통령의 제기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무안 전국 승달 국악대제전’은 무안 출신 명장인 강용환, 강남중, 강대홍 등 3명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열려 국악인의 등용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에 종합대상이 국무총리상으로 승격된 이후 2011년부터 대통령상으로 상훈격 승격 의견을 매년 해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주영순 의원은 “무안 전국 승달 국악대제전의 종합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되면 전국적인 국악행사도 민속음악의 중심에 설 것”이라며 “전통국악의 계승은 물론 전국의 국악 신인들을 발굴·육성해 전통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전남후계경영농 253명 선정

전국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지원

전남도가 3일 미래농업을 담당할 영농창업농, 기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 253명을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이들에게 최초 융자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후계농업경영인은 남성 220명(87%), 여성 33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5세 이하 청년층이 216명(85%)으로 46세 이상 37명(15%)보다 월등히 높아 젊은 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시·군별로는 영암군 31명, 무안군 28명, 장성군 27명, 나주시 25명, 화순군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후계 농업경영인에게는 농지 구입, 시설 및 운영자금 등 창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2%의 융자금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전남도는 후계 농업경영인의 이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대출이자 지원에 나서 최초 융자 3년간은 대출금리의 2% 중 1%를 지원한다.

주순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후계 농업경영인이 조기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하도록 자질 향상, 역량 강화, 전문 기술교육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1743명의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정, 모두 5781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현식기자chadol@



담양중학교 신입생들이 지난 2일 학교 대강당에서 도포를 입고 유교식으로 입학식을 치르고 있다. 이날 입학식은 조선시대 왕세자의 입학례 가운데 스승에게 가르침을 허락받는 ‘속수례’를 접목해 진행했다. <담양중 제공>

도포 입은 담양중 새내기들 ‘속수례’ 입학식 눈길

스승 첫만남 존경 뜻 표해

담양중학교(교장 김성희)가 기존 입학식의 틀을 깨고 유교식으로 치러 눈길을 끌었다.

담양중은 ‘올곧은 선비 인성교육 프로젝트’의 하나로 성공관 여성유도회 광주시본부의 협조를 받아 2일 대강당에서 ‘속수례’(束脩禮)로 신입생 입학식을 진행했다.

신입생 81명과 1학년 담임교사의 첫 만남은 조선시대 왕세자의 입학례 가운데 스승에게 가르침을 허락받는 ‘속수례’를 접목해 구성했다. 신입생들은 도포를 입었으며, 1학년 담임교사들도 심의(선비들이 입던 옷)를 입고 참석했다.

‘속수례’는 스승을 처음 뵈 때 존경의 뜻을 표하는 예를 뜻한다. 학생은 스승에게 낮은 자세로 열심히 배울 것을 다짐하고, 스승은 제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깨우침을 전하는 겸손한 마음을

담고 있다. 김성희 교장은 “옛 선조들은 ‘모든 가르침이 예에서 시작된다’고 여겼다”며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에게 열심히 배우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입학식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2014학년도 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올(ALI)선(善)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je@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남로 가구정 대지 416㎡(126)공사가 12억천 원행 8억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양호 14억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좋은 모빌 대지 390㎡(118) 건평 1375㎡(416) 객실 33 유휴 10억8천 교환가능 14억7천
- 금매 관현동터미널 인근 6층건물 대지 661㎡(200) 건평 3055㎡(924) 4층 133평은 공실 대출 15억 전세 9억 월500 회사사옥 등 복합 25억
- 여수시 티미널 부근 오일동 대지 330㎡ 공사가 2억3천 매도2억4천
- 전남도청부근 상업지 1288㎡(390) 공사가 16억4천 매도 14억
- 장성군 삼계면 1층 주거지 6908㎡(209) 은행 2억 매도 2억3천

투자 매도 교환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인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천 수익 8억7천
- 나주시 금천면 오거리 7934㎡(240) 남양유업인근도로 좋은 공장, 창고 등 대용도 11억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임
- 화정동 5분거리 대지 645㎡(195) 별장용 단독주택 등 복합 3억천
- 전월주택, 별장 부지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1645㎡(498) 분할 매매도 가능 평당 54만원
- 월룸 건물 상층동 5.18평월 건너 원룸용 대지 206㎡(60) 건평 453㎡(137) 인접, 기계, 원룸 15개 4억천
- 편선 빌딩 등 복합, 가든 등 복합, 담양군 용문면 주월산 부근 대지 3033㎡(917) 매도 평당 25만원 2억4천5백만원
- 편선 빌딩 등 복합, 나주시 산포면 790㎡(234) 1억
- 이점민해간, 광산구 하산동 그린벨트 대지 1009㎡(305) 건축물 대장있고 장기적인 투자에 좋음, 은행 9천, 매도 9천
- 장성군 황룡면 대지 등 3686㎡(1115) 매도 9천만원

경복 포항시 금매, 교환물건

- 신촌동 6거리부근, 2013년 은행권 시설좋은 14세대 원룸,부동산 물건, 대지 328㎡(99), 건물 660㎡(200), 은행 4억6천, 보증금 3억5천, 월350만원선 임어나 내다지 및 부당적인 물건과 교환도 가능 9억4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신관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 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층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3억8천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층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 75㎡, 점포 26㎡, 매2억4천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거리 전 및 대지 7,930㎡ 신축주택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변, 매12억
-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전 배 과수원 6,089㎡ 생산관리 지역 투자유망 매 7억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전 5,990㎡ 2차선도로변 보존관리지역 3억3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변 매3억2천만
- ▶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전4,126㎡ (지목,임야) 갈나무 10년생 2차선 국도변 생산관리지역 매1억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원
-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3,871㎡ 주택, 창고적합, 도로양호 매9천5백만
- ▶ 나주시 세지면 송재리 담7,610㎡ 2차선 국도변 도로변, 투자유망매1억5천만
- ▶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임야1,384,140㎡ (대지,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산산 적합 매30억원
- ▶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 과수원24,884㎡ 매4억8천만
- ▶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 91,446㎡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생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죽석사거리) 2층건물 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25억(보.2억 월 1,000만)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형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담

- 남구 노대동 대지 405㎡ 8억5천
- 광산구 우산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618㎡ 1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역 전 6,900㎡ 19억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32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산 청룡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000원 (아적장 주가장 적합, 시설완비)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형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NAVER 7244호 농촌진흥청

단비플라워

축하환3년 근조환3년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범원경매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인접 신축공장 대지1,918㎡ 건물376㎡ 감정가2억7천 최저가9천만원 (물류창고적합)

남구 백운동 영우예다음, 백운스카이라이프입구 코너 1층~4층 근린주택 대지315㎡ 건물635㎡ 감정가5억 최저가3억5천만원(홍미추천)

부동산 세테크 전문

동구계림동 마사회부근 대지 519㎡ 최저가4억2천 2차선도로변, 일반상업지역, 재개발예정지(투자적합)

동구 계림동 수영선수촌간길 확장 재개발예정지8구역 지하~4층 근린상가 대지182㎡ 건물586㎡ 최저가 3억2천

부동산개발 및 경공매전문

다외옥션 김용희부장
010-7147-4989